

2020년 대학법인 장애인고용부담금 상위 15개소						
(단위: 명, 백만원)						
순위	학교법인명	상시근로자 수	의무고용인원	장애인근로자 수 (중증 2배수)	고용률	부담금
1	연세대학교	16,903	523	148	0.88%	6,784
2	일송학원 (한림대)	6,667	206	36	0.54%	2,953
3	한양학원 (한양대)	6,839	212	53	0.77%	2,115
4	고려중앙학원 (고려대)	12,025	372	265	2.2%	1,753
5	동국대학교	4,821	149	45	0.93%	1,555
6	건국대학교	5,071	157	68	1.34%	1,477
7	울산공업학원 (울산대)	4,546	140	45	0.99%	1,292
8	가톨릭학원 (가톨릭대)	18,322	567	453	2.47%	1,284
9	이화학당 (이화여대)	5,925	183	89	1.5%	1,166
10	정석인하학원 (인하대, 항공대)	4,593	142	58	1.26%	1,133
11	인제학원 (인제대)	8,497	263	191	2.25%	1,063
12	경희학원 (경희대)	8,106	251	145	1.79%	1,025
13	영남학원 (영남대)	4,553	141	58	1.27%	1,011
14	성균관대학 (성균관대)	3,485	108	51	1.46%	936
15	중앙대학교	3,807	118	55	1.44%	846

* 2020년 12월 기준 ** 장애인근로자 수 및 고용률은 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 *** 부담금은 신고(공제 후)금액 기준

(자료=노동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0년 기준 경희학원은 대학법인 중 12번째로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경희학원 장애인 고용률 1.79%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이봄 기자 lbom.kr@khu.ac.kr

법정 비율 3.1% 못 지켜 경희학원 포함한 대학법인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사립대학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른 것으로 2018년의 32.7%에 비해 봐도 10% p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면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 장애인고용 부담금도 지난 5년간 전체 1,581억 원에 이르고 있다. 부담금 납부 대상 사립대학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대학은 33개로 사립대학 5개 중 4개가 해당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경희학원 역시 2020년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3.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학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해 온 우리학교가 정작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신문은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봤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중 3.1%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으로 간주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의 의무 장애인 고용인원에서 상시 고용 중인 장애인 수를 뺀 인원에 부담금 초액을 곱해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우리학교는 부담금 산정 시 경희학원을 기준으로 산하 양 캠퍼스, 의료원, 병설학교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

장애인 고용 부진한 경희학원

우리신문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동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위 100개 기업 자료에 따르면 경희학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1.79%로 의무 비율인 3.1%에 미치지 못했다. 8,106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희학원은 251명의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지만 실제 고용된 장애인근로자 수는 145명에 불과하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경희학원이 2020년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부담금은 10억 2,500만 원으로 부담금 납부액 기준 사기업, 공공기관을 포함해 국내 상위 72번째 기관에 해당됐다. 이는 약 9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 국내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 한화 등의 대기업보다도 높은 수치다.

대학(대학법인) 중에서는 총 15개 교가 장애인고용부담금 상위 100개소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경희학원의 부담금액이 12번째로 높았다. 이 중 경희학원을 포함한 작년 12개 대학들은 3년 내내 부담금 상위 100개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희학원이 3년간 납부한 금액만 약 31억 원에 달했다.

경희학원 측은 “장애인 고용률은 산하기관 전체를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각 산하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희의료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너무 많이 지출돼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 하고 있다”며 “올해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 자회사인 경희메니지먼트 컴퍼니는 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며 국제캠퍼스의 카페 쿠피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면 ‘장애인 고용’으로 계속

중간고사 비대면 시험 원칙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우리학교 중간고사 시행 방식과 일정이 확정됐다.

시험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 특성상 대면 시험이 필요한 강좌와 기존 강의계획서 운영상 대면 수업이 진행 중인 강좌는 학장 승인 하에 대면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시험은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분산 진행한다. 수업시간 내에 진행하되,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조정해 운영된다. 주 2회 이상 수업이 진행되는 강좌는 요일별로 시험을 분산 시행한다. 월·수 수업에 50개 강좌가 편성돼 있는 경우 월요일 25개, 수요일 25개 강좌의 시험이 각각 진행되는 식이다.

시험은 2주 동안 진행되고 캠퍼스별 대면 시험과 비대면 시험을 분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캠퍼스에서 비대면, 국제캠퍼스에서 대면 시험을 실시한다. 그다음 주인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캠퍼스별 대면·비대면을 반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학사지원팀은 “접속자 몰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캠퍼스별로 시간을 나눠 시험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면 시험의 경우 등교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건물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또한, 선별 검사지와 강의실 출입 대장을 작성해야만 시험 장소에 입실할 수 있다.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발열 확인서를 발급받고 귀가한 후 교강사에게 비대면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대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자가 격리 등으로 대면 시험 참석이 불가능한 학생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평가 신청서는 학사지원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